

## 시련에 대항하는 습관 만들기

### 에베소서 /장 /8절

18.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 면제되지 않는 시련

오늘은 C. 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에 나오는 글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시험지에 선택 문제가 나왔을 때에는 자기가 풀 수 있는 문제인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필수 문제가 나왔을 때에는 어찌 되었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 풀어야 합니다. 그러면 답안을 제대로 못 쓰더라도 어느 정도의 점수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풀지 않으면 단 한 점도 얻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시련에 대항하는 습관 만들기”입니다. 만일 이 시련이라는 놈을 피할 수 있는 것이라면, ‘시련을 피하는 습관’에 대하여 공부하는 것이 훨씬 유익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시련이란 놈은 우리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기에 ‘대항’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은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인생 가운데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C. S. 루이스가 말했던 것처럼 ‘시련과 시험’은 우리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필수 문제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에서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시험이 없게 해 주세요’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정재은 자매가 ‘설희’라는 배역을 맡은 뮤지컬 “영웅”을 관람했습니다.

영웅 안중근 보다는 인간 안중근에 초점을 맞춘 작품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으로,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영웅 독립투사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안중근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거사를 거행했는지, 그리고 그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순간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작품이었습니다.

뮤지컬의 마지막 장면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교수형에 처하는 밧줄이 내려진 자리에서 장부의 뜻을 끝까지 이를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가 말입니다.

타국의 태양 광활하나 대지 우린 어디에 있나  
잊어야 하나, 잊을 수 있나 꿈에 그리던 고향  
장부가 세상에 태어나 큰 뜻을 품었으니 죽어도 그 뜻 잊지 말자 하늘에 대고 맹세 해본다.  
두려운 앞날, 용기를 내어 우리 걸어가리라  
눈물을 삼켜, 한숨을 지워 다시 걸어가리라  
어머니, 어머니, 서글피 우시던 모습 날이 새면 만나질까 멀고 먼 고향 너무 그리워  
기적소리가 우리의 심장 고동치게 하리니 조국을 향한 그리운 마음 눈시울이 뜨겁다  
장부가 세상에 태어나 큰 뜻을 품었으니 죽어도 그 뜻 잊지 말자.  
하늘에 대고 맹세해 본다, 하늘이시여 도와주소서 우리 뜻 이루도록  
하늘이시여, 지켜주소서 우리가 반드시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가장 복되게 만드는 것은 시련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시련을 이기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면서 묵상팀에게 자유로운 느낌을 이야기 보라고 했습니다.

한 분이 이렇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께 대항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시련에 대항하라~ “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거나 대항할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대개

시련이란 우리가 원치 않던 일들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어쩌면 당연한 반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시련에 이기는 방법은 ‘대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시련에 맞서는 것이죠.

여기에서 ‘함께’라는 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시련에 대항하지 못하는 이유는 시련을 당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묵상 팀의 어떤 분은 이러한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종종 그런 표현을 잘합니다. 예전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마치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져 내리는데 그냥 무기력하게 서서 졸딱 다 맞고 있는 느낌이었다고..

우산을 펼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아니 우산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있는 채 말이죠.

손에 우산을 들고 있으면서 폭우를 그대로 맞고 있을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을 때, 신앙이 깊지 않았을 때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막상 어려운 일을 만나면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돌아보면 챔버스의 표현대로, 하나님은 믿음을 연단하는 시험을 허락하시고 그 어려움들을 적절하게 극복하는지를 보셨던 것 같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에 고난은 이상한 게 아니며 자연스러운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바람’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없기를 바라죠.

챔버스는 묵상 글에서 시련은 주의 자녀들을 '자녀답게' 만드는 일이라는 표현이 마음에 들어옵니다. 자녀다움.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서두에서 말하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낸다는 말인 것 같아요.

자녀는 부모의 가르침대로 그 가정의 문화 속에서 성장하며 부모를 닮아갑니다. 긍정하든지 부정하든지와 상관없이 나이를 먹어가며 어느새 점점 부모와 비슷한 모습이 되어간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 또한 연약한 인간이므로 자녀 교육을 포함한 삶의 모든 부분에서 시행착오를 거쳐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므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우리를 자녀답게 만드는 고난과 시련에도 주님께 저항하지 않고 신뢰함으로 받아들이고 의지하면, 점점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드러나야 한다는 말은 자칫 너무 추상적이고 어렵게만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부모를 닮듯, 영의 부모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결국 나의 성품의 변화, 인격의 변화를 이루는 것이 나를 통해 예수님의 드러나는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챔버스는 이 과정 가운데 주님이 드러나실 수만 있다면 아무리 아픈 고통이라도 인내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인내'가 시련에 대처하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동적이고 소극적 의미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챔버스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뛰어넘는 적극적인 의미의 인내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크고 작은 시련이 계속되는 삶에서, 고난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인내하기가 정말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에서 의미 없는 고난만큼 무의미한 것은 없으니까요..!**

####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엡1:18)**

사도 바울은 변화된 이후, 자신의 소망이 아닌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삶은, 찢겨진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어 조금 더 나를 죽이고, 조금 더 희생하고, 조금 더 손해보고, 조금 더 사랑해야 하는 삶이 아닐까..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이제는 저에게 우산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습니다.

####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시18:29)**

'습관'을 주제로 계속되는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받은 목적을 실현하며 살아야 합니다.

**“당신이 구원받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받은 구원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여전히 옛 생활 방식을 고집한 채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정결하게 하셨다는 것은 거짓말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늘 어려움과 시련이 있습니다. 왜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 없는 인생'을 주시지 않습니다. 시련과 어려움을 적절하게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챔버스는 오늘 묵상에서 시편 18편 29절을 인용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세상에서 만날 시련을 면제해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 베드로전서 4장 12절

12. 사랑하는 자들이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라고 해서 ‘시련’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면제되지 않는 시련을 만났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삶의 습관은 이렇습니다.

“불 시험이 오면 일어나 대처하십시오. 만일 그 불 시험이 당신의 죽을 육체를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낼 기회가 된다면 아무리 아픈 고통이라도 인내하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신 칭찬이 나와 있습니다.

10.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챔버스는 그의 책 [オス왈드 챔버스 하나님의 사랑]에서 ‘인내’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인내는 시험을 전제로 한다.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어 시험한다. 끊어지지 않고 얼마나 견디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팽팽하게 당겨보는 것이다. 바이올린 줄 같은 경우 가장 높은 음은 가장 강하게 당겼을 때 난다. **인내하는 힘이 셀수록 음이 높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내하는 성도일수록 하나님을 위한 삶의 소리가 곱다.**

주님께서는 결단코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시련을 주지 않으신다. 우리가 ‘슬픔과 재난과 비참’이라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은 ‘연단’이라고 하신다. 우리 귀에는 불협화음으로 들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소리로 들린다. 당신이 꾸지람을 받을 때 실족하지 말라. 주의 연단을 멀시하지 말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눅 21:19).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쉼의 시간을 주시면 주님의 치유의 일사귀 안에서 평안하게 쉬라.

챔버스는 시련이 올 때 일어나 대처하라고 합니다.

그 대처는 인내입니다. [オス왈드 챔버스 하나님의 사랑]에서 말한 것처럼, 인내하는 성도일수록 하나님을 향한 삶의 소리가 곱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 그러면 이러한 습관을 만드는 방법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제가 만나교회 공동체와 설교를 하면서 참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의 추억’ 혹은 ‘간증’이라 불리는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기념비’라는 말이 종종 등장합니다. 지금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요단강을 건넌 후 12지파가 돌 하나씩을 가져와 길갈에 기념비를 쌓은 일입니다. **여호수아 4장 20-22절.**

20.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열두 돌을 길갈에 세우고
21.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물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이까 하거든
22.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경험한 기적이었고, 하나님은 이것을 기념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또 다른 환란을 만났을 때, 그 기념비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를 생각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념비는 늘 하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사무엘 상에 보면 두 종류의 기념비가 나옵니다. 하나는,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

**사무엘 상 7장 12절에 나오는 기념비입니다.**

- 1/2. 사무엘이 돌을 쥐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 기념비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하나님께서 도우셨음을 고백하는 기념비입니다. 이때까지 이스라엘은 늘 블레셋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여호와의 법궤도 빼앗겼던 상황이었습니다. 늘 패배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전쟁도 객관적 전력으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이 불리한 싸움에서 사무엘은 이런 작전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무엘 상 7장 3절.**

3.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런데 이와는 달리, 한 사람의 인생이 파arel로 이르게 되는 다른 '기념비' 사건이 나옵니다.

**사무엘 상 15장 12절 말씀입니다.**

- 1/2.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이 사건은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과 사울왕은 승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자신의 기념비가 얼마나 오랫동안 효력이 있겠습니까? 나이가 들면 힘이 다하게 될 것이고, 수 없이 많은 다른 환경들이 찾아올 텐데, 과연 그 모든 것을 제어할 능력이 사울에게 있을까요?

자신의 기념비가 변화된 환경에서도 힘이 될까요?

자신의 기억을 가지고 다가오는 시련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자신은 이미 그 때의 그 사람이 아닌데 말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오류 가운데 하나는, 자신이 천년만년 힘과 권력을 휘두를 줄 안다는 것입니다.

시련에 대항하는 습관을 세우는 것은,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기념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함께 고난을 경험하고 함께 고난을 헤쳐 나가 믿음을 공유하는 사람들, 이들이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 불평하지 않기

시련에 대항하는 습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련을 당할 때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습관은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습관’시리즈를 시작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버릇과 습관은 다르다!

버릇이 무의식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면, 습관은 의도적으로 우리들의 삶에 젖어드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면,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불평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힘들다고 말하는 것이 본능 아니겠습니까?

좋은 습관은 우리의 자연적 본성을 이기면서 만들어 지는 것입니다.

시련을 당할 때 불평하면, 우리의 자연적인 모습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자녀 된 성품이 드러납니다.

불평하지 않기 위해서는 시련에 대항하는 우리의 영적 자세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챔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유일한 목표는 그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드러나는 것이요 하나님께 명령하려는 마음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가 분명하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살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명령하려는 마음’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공생애 기간 동안 하나님께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어렵고 힘든 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갯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영성가인 앤드류 머레이가 아주 중요한 ‘시련을 극복하는 방법’을 남겼습니다.

앤드류 머레이(Andrew Murray)는 어둠 속에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 목록을 작성했다. 1895년에 그는 잉글랜드에서 등이 몹시 아파 고생하고 있었다. 몇 년 전의 부상 때문이었다. 어느 날 아침, 그가 방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여관 주인이 왔다. 아래층에 묵고 있는 여자가 큰 어려움에 처했는데 혹시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해줄 수 없겠느냐는 것이었다. 앤드류 머레이는 뭔가가 적힌 종이 한장을 건네주며 말했다.

“내가 나를 위해 적어 둔 층고입니다. 이걸 그녀에게 전해 주십시오. 그녀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종이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역경의 시간에 이렇게 말하라.

“우선, 그분이 나를 여기로 데려오셨다. 내가 이 협착한 장소에 있는 것은 그분의 뜻이다. 그러므로 나는 여기서 안식할 것이다.”

그 다음엔 이렇게 말하라.

“그분이 사랑으로 나를 보호하실 것이고, 이 시련 중에도 그분의 자녀로서 행동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이다.”

또 이렇게 말하라.

“그분이 시련을 축복으로 만드실 것이고, 내가 배워야 할 교훈을 가르치실 것이며, 주려고 작정하신 은혜를 부으실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라.

“그분의 선하신 방법과 시기는 그분만이 아신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라. “나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훈련 아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여기에 있다.”

그리스도인이 부를 받은 이유는 하나님께 명령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할 때,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도 다시 한 번 ‘찢겨진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를 받은 이유를 깨달을 때, 주님은 기꺼이 우리를 ‘찢겨진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먹이고 양육하십니다.

그러니 시련이 올 때 ‘대항’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맞서면 용기가 생기지만,

뒤 돌아서면 두려움이 쫓아옵니다.

시련에 맞서지 못하고 도망하면, ‘도피’가 습관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제 이야기로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시카고에 유학하던 시절 1년을 지났을 때였습니다.

한국에서 대학원까지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은 제가 미국에서 시작한 공부가 M. Div 과정이었습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신학 공부를 다 마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석사과정은 전공분야만 하면 되지만, 이 과정은 목회자가 되는 모든 영역을 다루어야하기 때문에 학문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양이 너무 많은 과정입니다.

당시 영어가 되지 않는 저로서는 참 따라가기가 힘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목사 안수까지 받은 내가 이 어려운 과정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핑계가 자꾸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 고민의 순간에, 시카고 지역 한국 목회자들이 모이는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장 나이 어린 목사 중에 하나였고, 기타를 메고 찬양인도를 하고 레크레이션을 인도하고 있을 때였죠.

잠깐 쉬는 시간에 까마득히 높아 보이는 선배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제 고민을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아무래도 좀 쉬운 과정으로 바꿔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선배 목사님이 제 삶에서 잊을 수 없는 조언을 한 마디 해주셨습니다.

“김 목사님, 한 번 포기하면 또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니 끝내세요.”

그 말이 얼마나 귀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끝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미국 학생들도 3년에 마치기 힘들다는 과정을 저는 2년 만에 마치게 되었고, 박사과정으로 들어가 학교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영어는 여전히 저에게 큰 장벽이었고, 경제적인 여건도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큰 교훈과 새로운 습관이 저를 잡아 주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빨리 마치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한국으로 돌아가 목회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습니다.

아무리 간절해도 공부를 포기하고 돌아가는 것보다는 공부를 마치고 돌아가야 후회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 때의 경험이 저를 많이 불잡아 주었고, 그 경험이 저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종종 저의 수첩에는 ‘check lists’가 있어서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피하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이렇게 다짐합니다. 피하고 싶은 그 일이 사실은 제가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필요한 것은 ‘회피’가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기 있게 대면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진다고 생각할 때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시련 가운데 가장 큰 힘은 ‘소망’입니다.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한 시련은 끝이 아닙니다.

어떤 개그맨이 그런 말을 하더군요.

우리가 흔히 ‘성공과 실패’라는 말을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말이라고요.

성공은 있지만 실패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성공하지 못한 ‘과정’이 있을 뿐이지 소망을 버리지 않으면 아직 실패한 것이 아니니 말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엡 1:18)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소망도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소망을 붙들고 놓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니, 시련이 올 때 마다 소망을 부여잡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